

能動的 人間의 探究(2)

哲學과 文學의 接觸面

金午星

精神的 行動인 姿勢는 內的으로는 感情的인 것 外的으로는 能動的인 것은 同時에 意識 할 수 있는 內面的 運動이다. 그러므로 人格이란 一定한 心的 觀點에 依해서 自己의 모든 姿勢 즉 行動을 瞬間적으로 連續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以上の 페르낭데스의 行動主義가 行動이란 名詞만 悟人한 칸트流의 二元論的 觀念論에 不過하다는 것을 알수 잇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精神主義가 現代의인 今日의 社會的 不安을 超克 할 수 업슴은 두말할 것도 업다.

내가 말하려는 能動主義는 이러한 精神主義와는 絶對적으로 區別되는 것이다. 能動主義가 『不安으로부터 再建에』의 目標를 達成하려면 어대까지나 具體的 感性的인 領域을 固守하지도 안흐면 안된다. 웨-그러야하면 今日의 現實的 不安은 精神的이기 前에 『感性的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能動主義가 眞實로 不安을 超克하려는 人間屬의 指導的 이데오로기-가 되려면 卽 萬語의 理論 보담도 오히려 不安과 混亂 속에서도 冷靜한 洞察力과 百折不屈의 信念과 불타는 建設的 情勢을 가지고 이 類의 明日을 創建하기 爲하여 行動 할 그러한 能動的 人間 타입을 發見하며 創建하지 안흐면 안될 것이다. 그러한 能動的 人間만이 現實的 不安을 超克 할 수 잇슬 것임으로써 이다.

二

그런대 能動的 人間 타입의 探求는 哲學 보담은 文學 領域에서 可能하다 할 것이다. 웨-그러야하면 能動的 人間 타입은 어떤 理念的 또는 概念的인 人間을 意味함이 아니요, 建設的인 意欲과 情勢에 불타는 生生하게 行動하는 人間의 性格, 타입을 意味하는 까닭에 事物의 概念的 認識이나 理念的 論理만을 目標로 하는 從來와 가튼 講壇哲學에서는 이러한 人間 타입을 보혀 주지 못할 것이요, 오직 산 人間의 行動 性格 타입을 描寫 할 수 잇는 創作을 目標로 하는 文學에서만 可能 할 것임으로써 이다.

實際에 있어서 人類의 偉大한 敎師라고 하는 大哲學者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 가튼 이도 우리에게 模範할만한 어떤 獨特한 人間 타입을 提示하지 못했다. 勿論 아리스토텔레스의 『政治的 動物』 또는 『理性的 動物』로서의 人間이나 칸트의 일은 바 『네의 意志의 格率이 항상 同時에 一般的 立法의 原則에 妥當하도록 行爲하라.』한 格率的, 論理的인 人間이 特殊한 人間 타입이 아닌바 아니나 그러한 理論的으로 解釋된 人間 타입이 우리의 實際生活에 어떤 影響을 주는가는 疑問인 것이다. 그 보담은 오히려 세르반데스의 『동. 키호테』 셰스피어의 『햄릿트』 피-테의 『과우스트』 『트르케네프』의 『바사롭』 『니-체-』의 『썰라투스트라』 도스토이엠프의 『地下室의 사나회』 등이 우리에게 어떤 點으로나 生々한 影響을 주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것은 人間の 偉大한 性格과 타입은 藝術家만이 創造 할 수 있으며 偉大한 藝術家는 그 時代의 特徵을 代表 할 人間 타입을 創造 할 수 있음을 反論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探求하려는 能動的 人間 타입은 단히 藝術家의 創作에서만은 實現될 수 없다. 왜 그러냐하면 藝術家의 創作 世界는 그가 리아리스트일 때에는 너무나 現實的 外部的인 것에 끈치기 쉬우며 그가 로만티스트일 때에는 너무나 幻想的이기 쉬운 까닭에 不安으로부터 再建에를 目標로 하고 行動 할 能動的 人間은 이러한 單히 現實 世界에서만 行動하는 人間이나 單히 幻想 世界에서 浮沈하는 人間이 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能動的 人間 타입의 探究는 單純히 哲學的 認識 推理만으로도 不可能한 同時에 單純히 藝術的 創作만으로도 不可能한 것이다. 오직 兩者의 緊密한 協力 乃至 結合이 있는데서만 可能하리라 생각된다. 能動的 人間 타입의 探究는 먼저 人間性의 認識으로부터 出發하지 안하면 안된다. 우리 人間性의 內面에는 과연 能動性이 潛在해 있는가를 알아 보아야 한다. 만일 人間性의 內面에 能動性이 潛在하지 안는다면 우리는 能動的 人間 타입을 創造 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역지로 지어 놓는다 하드래도 現實에 對해서 『동.키호-테』 以上으로 無力 할 것이다. 그러나 哲學的 認識 推理는 항상 이미 所與된 對象 即 潛在을 對象으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人間性의 哲學的 探究는 人間性에 所與된 것을 認識 할 뿐이며 이 所與된 人間性의 認識을 基礎로 하여 人間性의 어떤 可能性을 推理로서 想像 할 뿐이다. 그러나 能動的 人間 타입의 探究는 이러한 人間性의 認識 推理에 머지질 수는 없다. 왜-그러냐하면 能動的 人間 타입의 探究는 人間性의 認識에 그 目的이 있지 안코 오늘의 不安을 超克하고 明日의 人類의 生存을 再建 할 行動하는 人間 未來的인 人間을 實現하시爲한 것임으로써 이다. 여기에서 藝術的 創作의 힘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